

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종합상황실 운영...도내 급경사지·옹벽·석축 등 침하·붕괴 등 2만 3000여곳 대상

3월 들어 전북도 평균기온이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돼 도내 각종 시설물들의 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한 안전 위협요소 점검·처리에 분주한 분위기다. 2일 전북도는 해빙기 6개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해빙기 종합안전상황실(실장 최병관)을 구성해 6개 분야 23,209개소의 재난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위협요소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안전 점검사항은 분야별로 ▲급경사지, 옹벽, 석축 등 해빙기 위험시설 1,168개소에 대한 균

열 침하, 붕괴 ▲도로시설 7,530개소에 대한 파손, 침하 등과 같은 손상 ▲노인·장애인 시설 10,178개소에 대한 안전장비설치·보유·운영 상태 ▲2,236개소의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제방 및 관리상태 ▲어린이놀이시설 2,008개소에 대한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상하수도시설 89개소에 대한 정비현황 등이다.

또한 도는 도내 공동주택의 축대 붕괴 및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 아파트는 도내 기존 공동주택 1,365개단지 368,649세대와

시공 중인 아파트 50개 단지 22,606세대 및 공사 중단된 아파트 8개단지 4,315세대에 대해 2일부터 오는 15일 까지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1~2개월내 조치 할 방침이다. 이어 정밀 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2017년도 정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도지사 등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현장행정(점검 등) 실시를 통해 해빙기 점검의 도민 관심도 제고는 물론 안전과 관련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면밀히 청취·해결함으로써 안전체감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 등 붕괴 위험이 항상 내재돼 있으므로 안전 위협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 주시고,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피해가 없도록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15일부터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876개소를 점검하고 안전위험요소 742건을 발굴해 현지시정 16건, 보수·보강 713건, 기타 13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정영수기자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점검

전주시가 해빙기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내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겨울 내 동결된 지반이 녹아내리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 전담 점검반을 편성, 오는 11일까지 관내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며, 해빙기가 되면 동결되었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각종 시설물 구조가 약화돼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경찰서, 시설유지관리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

교통표지판 1만325개 ▲시선유도봉 9750개 ▲반사경 1884개 ▲갈매기 1122개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관내 교통시설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새 학기를 맞은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 점검하고, 한옥마을을 비롯한 주요관광지와 터미널, 전동시장 인근 교통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위험정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긴급공사 대상 시설물의 경우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위험요소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재기자

도, 영농철 앞두고 가뭄대비 용수공급대책 일제점검

전북도는 2일 영농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봄 가뭄대비 안전영농을 위한 용수공급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을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해 232억원(국비 218억, 지방비 14억)을 투자해 총 441개소의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용수개발사업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점검 및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및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정 및 양수장비 등에 대해 정상작동 여부와 정비예산 확보상황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도내 저수지 2,236개소를 대상으로 용수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에 대해서는 수해농지에 대한 대체용수 확보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올해 관정개발, 양수장 건설 등 항구적인 용수원 개발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 111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161억원을 투자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418백만톤(저수율 60.8%) 가량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 올해 이앙기 용수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민일에 대비해 주요 저수지의 하천 유지용수 등 방류량을 최소화하고 양수 저수지 답수 실시, 가뭄극복 3대 운동(저수·답수·용수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전북JC회장단 송하진지사에 명예회원패 전달 2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JC) 전북지구 이도영 회장을 비롯한 각지사 회장단이 송하진 도지사에게 명예회원패를 전달하고 세계잼버리 유치홍보 및 도청중점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 기업 대표자·담당자 대상 '선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3일 도내 산업의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선도기업 관계자의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는 자리로 2016년도에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기술관리(R&D), 시장관리(마케팅), 조직관리(인력관리, 성장관리 등 세

부 지원사업별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장개척 및 기술관리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27억원, 공정개선 등 기술해결 지원 8억원, 인증, 특허 등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 6억원, 기업문화개선,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1.6억원 등 총 국·도비 45.2억원이 지원된다.

2010년부터 도에서 추진한 이 사업은 그 동안 총 112개 기업이 선도기업

으로 선정돼 207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지역강소기업 4개와 월드클래스 300에 1개 기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도내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전국단위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 등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업이 도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송하진 도지사 전북연구원 방문 지역발전 특강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전북연구원을 방문해 강연직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 날 송 지사는 "문제점 도출을 강조한 연구는 도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역의 틀을 벗어나 세계 속의 전북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적시성 있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수기자

도,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충

직매장 건립사업 등 7개 사업 39억6,000만원 지원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확산된 가운데 전북도가 안전할 지역 먹거리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확충해 구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2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에 39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직매장 5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보완 및 작목반 육성' 등 4개 사업에 38억3,000만원의 지원을 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4대 국립연구원(국립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과 지방행정연수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입주한 혁신도시에 전북농식품마켓을 건립하여 입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소

비자 신뢰 구축사업,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유해물질 검사(잔류농약 등), 원산지 표시, 판매가 책정, 위생상태 등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직거래장터는 명절 맞이 직거래장터 및 서울에서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등에 참여 할 계획이며, 전북도만의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형태로 운영 할 계획이다.

농촌활력과 김정모 과장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 생산자를 배려하는 소비라는 생각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시발점이다"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배려하고 상생하는 지역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스피치·웅변·면접·리더쉽·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학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케어니케이션, 나를 세운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 사람들 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교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